

안국선원장 수 불 스님, 16일 나눔 결사



어리석음은 광신 맹신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외면하고 뉘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 나눔은 헛 것입니다.

나눔은 종교 없이도 합니다. 종교를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인류애를 발휘하는 많은 사람들을 봐 왔습니다. 종교인만이 선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가 있음으로 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수행자는 어떤 방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이익을 줄지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나눠 변화를 이끄는 결사가 돼야 합니다. 사회나 국가 유관단체에서 하는 나눔이 아니라 종교계에서 하는 나눔은 사회에서 못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본연의 모습으로, 중심을 잡고 사회가 간과하고 소홀히 하는 부분을 지적해야 합니다. 사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종교가 더 깊은 안목으로 실현할 때 사람들은 진정한 종교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과 수단이 있음에도 그 방법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정진하는 분들 중에 빼어난 분들은 혼자 수행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5대 결사를 통해 제기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교육·생활 의식정도가 현저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기주장만 내세우기보다 우리민족의 애환을 통해 함께 좋은 방향으로 회향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른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명의 실상과 성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템플스테이 예산이 깎이면서 자성과 해신 5대 결사가 생겼습니다. 정부 관계자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들은 나타해진 종단의 단일함을 일깨워주는 역행보살입니다. 결사는 부처님 당시부터 실천해 온 일입니다. 단지 이번 5대 결사는 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 법 스님, 18일 평화결사



보십시오. 미운 마음, 화내는 마음은 눈빛, 얼굴표정에 다 나타납니다.

이 몸, 독한 물건이 나쁜 줄 알면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버려지지 않습니까? 잘 안 버려집니다.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버려려고 노력하면 버려집니다.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사무치게 인식하고 죽을 힘을 다해 버려야겠다고 작심하면 태도가 기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결심을 하는 것을 우리는 소위 발심(發心)한다. 원(願)을 세운다고 합니다. 또한 원을 성취하기 위해 수행을 하며, 노력하는 것을 용맹정진이라고 한다.

공 심은데 공 나고, 팔 심은데 팔 납니다. 인과법이라고 하죠. 평화의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자비와 사랑의 씨앗을 죽을 힘을 다해서 심고 가꿔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수행입니다. 수행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삶이 평화롭지

만대장경의 내용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은 같습니다. 이 질문을 일생동안 진지하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나 자신, 인간 개개인이 가장 거룩하고 완성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만 알면 부처님 앞에 가서 무엇을 구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존귀한 부처인데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인지를 몰라 명예, 지위, 권력, 학벌 등을 부처님에게 기도로 구하려 하는 것 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두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평화를 위한 첫 출발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에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내

불교계 나눔, 사회와는 달라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정신을 나누지 못하고 기복적인 어리석음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어리석음에 젖어 말로만 수행을 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수행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나눔 결사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정신적 눈을 뜨는 일입니다. 어떻게 계승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큰 뜻을 나눌 것인지 결정할 때입니다. 자성과 해신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편화

부처님은 승속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나눔은 작든 크든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주인공이 돼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기꺼이 나눠주는 자비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눈을 뜨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삶의 질이 바뀌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큰 인연을 만드는 일련의 작업들이 늦었다고 하는 순간이라도 해야 합니다.

공부 인연이 열렸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날 수 있는 방법

급까지 해온 일련의 일들을 시대상황에 맞게 조금 더 분명하게 제시하고 모두가 거듭나겠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철두철미하게 깃잡혀 이런 모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원수는 전체를 헤아리는 넓고 깊은 혜안으로 국정을 수행해야 존경을 받습니다. 앞으로 자성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찾아와서 쫓겨나더라도 다시 들어오고 들어와야 합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합니다. 불자가 나누지 않아 나눔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평화 원하면 미움부터 없애라

쟁입니다. 싸움과 전쟁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알면 평화의 가치를 알 것입니다.

싸움의 조건은 화(火)와 미움입니다. 미움과 화가 얼마나 뭉칠 것이며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기진심수사신(一起真心受蛇身)'은 '한번 미워하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뱀의 몸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화와 미움은 공덕을 없앱니다.

진심은 모든 공덕을 파괴하는 아주 독한 물건, 고약한 물건입니다. 인생을 추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품위 없이 만듭니다.

사람 얼굴을 한 번 보십시오. 다 나타납니다. 미운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의 얼굴을

않다면 기도는 해서 뭐합니까? 참선은 해서 뭐합니까?

인간은 싸울 때는 죽을 힘을 다하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미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참선이고 염불·수행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말씀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일체개고 아안당지(一切皆苦我安當之)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내가 가장 존귀하다'는 삼계의 일체 모든 괴로움(중생들을)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팔

인생 모두를 바치겠다'고 하고 출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비심, 대자비행입니다. 평화로 이르는 길입니다. 왜 대자비행을 펼쳐야 하는 것일까요?

나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일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가장 귀하고 고마운 존재인거죠.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을 잘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평화의 씨앗이자 참선이고 수행입니다.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아안당지'를 내 삶의 생활·연애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보살행이며 조계종의 평화결사를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옥천사 주지 정 법 스님, 17일 생명결사

생명을 논하기에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지구상에 살아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왜소하고 나약한지 일본 지진과 해일 피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피해 광경을 보면서 온 몸으로 생명의 귀중함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말을 붙이기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생명결사에 있어 어떤 부분을 생명의 가치로 여길 것인가 고민입니다. 스스로 4년 전에 산과 사찰, 자연환경과 생명, 문화자원을 지켜야 되는 생애에 서산 가야산

을 지키는 일에 뛰어들 적 있습니다. 평소 먹고 마시고 잠자며 편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꼈던 것이 4년 전입니다. 내 몸이 편안하고 건강하면 아픈 사람을 봐도 큰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더라도 내 몸에 칼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내 것으로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때론 친한 사람의 죽음을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슬픔을

나누기도 하지만 며칠 후면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라 하더라도, 중생의 삶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생로병사를 머리로는 잘 알지만 자기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몸서리 쳐지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합니다.

부처님은 계율의 제일 덕목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존귀한 것이니 살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쌍한 생명을 가엾이 여기고 보살피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할 텐데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처럼 잘 다가오지 않고, 여전히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마다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참고합니다.

저는 지금 조계사 앞마당에서 불교 내부의 청정을 지키지 못한 것, 비불교적인 행위를 용인한 것 등에 대해 70여일 제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그동안 참여는 많이 해 왔습니다. 이제 원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생명의 가치부터 제대로 알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 지붕 공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음

민속죽염 22년 전통
최상의 열과 은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죽염 230g 50,000원
일광역 죽염 125g 30,000원
일광역 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일광역 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동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황금의 불탑 미안마!!!

5월 12일
미안마로 떠나는 완전일주 8일 (짜인티오 참가도 가능)
1,900,000원
양근 | 바간 | 만달레이 | 해호 | 짜인티오

5월 24일
1,690,000원
양근 | 바간 | 만달레이 | 해호 6일

지장도량-관음도량 5월 23일
구회산 | 보타산 | 황산 6일
1,140,000원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하늘열차 티벳 8일 6월 7일 (요금 문의)

미안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안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佛祖正脉 불조정맥
Hwa-du 话头 화두

〈 불조정맥 〉 〈 화두/Hwadu 〉

중,영,한 3개 국어 판! 영,중,한 3개 국어 판!

중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 원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 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과 정맥전법계를 온전하게 갖춘 출간 예정. 최초의 불조정맥서 출간.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